

라르브르 앙상블 디즈니 음악회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화이트데이 저녁, 디즈니 영화의 익숙한 선율로 사랑의 다양한 풍경을 그려보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5층에서 열리는 라르브르 앙상블 정기연주회 '디즈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사랑이야기'다.



라르브르 앙상블이 오는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정기연주회 '디즈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사랑이야기'를 개최한다. 사진은 라르브르 앙상블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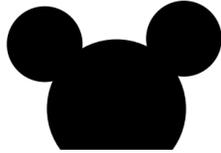
Disney 선율로 채우는 화이트데이 저녁

이번 공연은 화이트데이에 맞춰 기획된 무대로, 디즈니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로맨스를 비롯해 가족애와 우정,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까지 폭넓은 감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따스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연인들의 화이트데이 데이트는 물론 드레스를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관람,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 음악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관객들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디즈니 영화 속 익숙한 장면과 선율을 통해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는 무대라는 점도 이번 공연의 특징이다. 공연에서는 '토이스토리', '모아나', '알라딘', '겨울왕국'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줄 예정이다.

가족애·우정·자기애까지
다양한 사랑의 모습 음악으로



김수연 라르브르앙상블 대표는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조금 더 특별한 저녁, 사랑보다 오래 남는 선물 같은 시간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익숙한 선율 속에서 각자의 추억과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관계의 출발점에는 결국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익숙한 선율을 통해 각자가 간직한 사랑의 기억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전 연령 관람 가능하다. 관람은 사전예매 (<https://forms.gle/Moeip82Foaq97xRX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광주에서 창단한 라르브르 앙상블은 프랑스어로 '나무 연주단'을 뜻하는 전문 음악

단체다.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자'는 뜻을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극, 창작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단체는 2024년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 강계동원 추모공연,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극 '영웅 안중근' 공연, 독도 연주 등 역사·기념·추모 무대를 이어오며 공동체의 기억을 환기해왔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소화자매원, 장성 상록원 등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는 공연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장군 흥분도', '회장 이금주', '아빠의 청춘'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라르브르 앙상블은 지난 7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가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영웅 안중근' 공연을 44석 전석 매진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최명진기자

광주문화재단, '2026 광주예술로' 참여자 모집

기업 11개소·예술인 55명 선정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협력하는 '2026 광주예술로'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예술로'는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확장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를 돕고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기업·기관 11개소와 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관과 리더예술인은 1차 매칭을 통해 협업팀을 구성하고, 이후 참여예술인과의 2차 매칭을 거쳐 총 11개팀이 최종 확정된다. 한 팀은 기업·기관 1개소와 예술인 5명으로 꾸려진다.

협업팀은 약 6개월 동안 기업·기관의 ESG 실천, 공간·콘텐츠 기획, 조직 가치 확산 등 다양한 현안을 예술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리더예술인에게는 6개월간 월 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는 5개월간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신규 참여자 확대와 경력단절 예술인의 재진입 지원을 위해 예술인 서류 심의 시가 산점을 부여하고, 신규 참여자 쿼터제를 도입해 전체 선정 규모의 35% 이상을 신규 참여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기업·기관이 오는 16일까지, 리더예술인은 24일부터 4월7일까지, 참여예술인은 4월28일부터 5월11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 (dmd100@gjcf.or.kr)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실감형 무대로 만난다

오는 14일 제작 발표회 개최

전통 서사를 기반으로 한 마당창극이 가상·확장현실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무대 형식으로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용호)은 VR·AR·XR 기법을 적용한 창극 제작 발표회를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 VX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국공립예술단체 가운데 이러한 기술을 창극에 적용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회에서 공개되는 작품은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사진)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광주시립창극단 송년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작품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흥보의 유산을 둘러싼 욕망과 갈등을 그린 서사를 바탕으로 한다. /최명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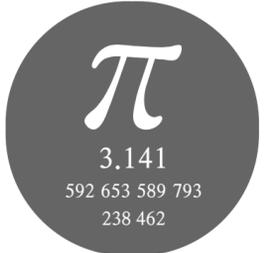
이번 발표회에서는 기존 작품에 실감형 콘텐츠 접목해 감성 몰입형 창극 형식으로 구현한다. 전통 마당창극을 가상 공간과 확장현실 환경 속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관객은 이야기와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품을 경험하게 된다.

제작 발표회는 100석 한정으로 진행되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립창극단(062-526-000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수학의 힘을 깨우다"

국립광주과학관, 수학의 날 기념
14-15일 '파이데이' 행사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수학의 날(3월14일)을 기념해 오는 14-15일 이틀간 '파이데이(원주율의 날)'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파이데이는 원주율(π)의 근사값인 3.14에서 유래한 날이다.

이번 행사는 ▲π탐구존 ▲π대회 ▲π버스킹 ▲π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이 수학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π탐구존에서는 원주율의 역사와 관련된 수학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아르키메데스의 상수를 활용한 계산 체험과 주변 사물을 이용해 원주율을 계산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원주율의 개념을 탐구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14m 거리에서 도전하는 π농구대회와 π양궁대회, 3.14초를 맞추는 π스톱워치, 원주율 암기왕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π대회와 π버스킹 프로그램에 도전해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파이 과자를 제 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이 π 모양을 운명으로 표현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π포토존'이 운영되며, 원주율을 주제로 한 '파이송'을 행사장 전역에 재생해 행사 분위기를 더한다.

14일 오후 2시 상상홀에서는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을 연다. '사람을 살리는 수학 - 수학과 의생명과학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수학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인간의 삶을 지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